

## 자강력제일주의 관련 북한의 보도동향

이우정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 uj\_lee@kdi.re.kr

2015년 말부터 북한매체에서 ‘자강력’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공장·기업소의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해야한다고 언급하는 등 제품의 국산화와 품질 향상을 강조해왔다. ‘자강력제일주의’는 2016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라고 구체화되었으며, 2017년 신년사에서는 자강력을 지난해의 성장 동력으로 언급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생산기술의 현대화, 원료·상품의 국산화를 강조한다. 또한 작년 5월 개최된 북한 노동당의 제7차 당대회에서 자강력제일주의는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선포됨으로써 다시 한번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북한매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현지도 및 민생행보와 함께 과학기술, 기업·공장소에서의 자력자강 추진경과를 선전해왔다. 북한의 대내경제에서 자강력제일주의라는 정책방향과 산업별 동향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북한의 언론과 문헌자료에 소개된 자강력제일주의 추진배경과 방침, 산업별 주요 추진경과를 발췌·요약하여 제공한다. 한편, 본 자료에서 주로 활용한 『노동신문』과 『조선신보』와 같은 북한매체에는 선전적인 성향과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다.

## Ⅰ. 북한의 자강력제일주의

### 1. 자강력제일주의 추진배경

자강력제일주의는 김일성·김정일 정권부터 사용되어오던 ‘자력갱생’의 연장선상으로 분류된다.<sup>1)2)</sup> 자력갱생은 자기의 힘으로 경제건설과 발전을 이루고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자립경제이론 원칙에 기초한다.<sup>3)</sup> 또한 자력갱생은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정신으로 풀이된다.<sup>4)</sup> 북한이 추구하는 자립경제는 중공업을 기본으로 하여 경공업·농업의 발전을 갖추어 대내시장을 대상으로 국내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것에 있다.<sup>5)</sup> 생산의 주체화를 위한 추진방향이 자강력이라면 이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은 기술의 현대화·과학화에서 나타난다.

‘자강력’이라는 단어는 2015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자강력제일주의’는 2016년 1월 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등장하였다. 그 이후 북한은 노동당 제7차 당대회를 전후로 통제와 동원을 통해 짧은기간 동안의 성과를 강조한 속도전인 ‘70일전투’<sup>6)</sup>와 ‘200일 전투’<sup>7)</sup>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추진동향은 주요 북한문헌과 『노동신문』과 『조선신보』와 같은 북한매체에 소개되었다. 속도전은 자립경제건설에서 요구되는 사업전개 원칙으로 알려졌다.<sup>8)</sup> 즉, 2016년 북한은 자강력제일주의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전투형식의 속도전을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술과 설비의 현대화·과학화를 추진하였다. 2017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는 ‘자력자강’이 5개년전략수행의 추진동력으로 언급되었으며, 이를위한 전민총돌격전을 강조하였다.

### 2. 자강력제일주의 방침

북한의 언론에 직접적으로 소개된 자강력제일주의 방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강력제일주

1) 『RFA』, 「[김현애]자강력제일주의」, 2016. 1. 11.

2) 예를 들어, 김일성 위원장은 당시 〈자력갱생 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망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자기의 힘을 믿고 자력갱생하면 어떤 어려운 과제도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고하며 자력갱생의 사상을 내세웠다고 함(『DailyNK』, 「김정일 “자력갱생 구호 높이 들어야”」, 2007. 1. 14).

3) 홍승은, 『자립경제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84

4) 김광국,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옹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1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5.

5) 홍승은, 『자립경제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84

6) 2016.2월 24일에 시작하여 2016. 5. 2에 종료됨(『RFA』, 2016. 5. 16).

7) 2016. 6. 1에 시작하여 2016. 12. 15에 종료됨(『노동신문』, 2016. 12. 19).

8) “자립경제건설의 과정은 원만하게가 아니라, 비상히 빨리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투쟁이다.”(홍승은 [1984], p.106).

의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우리의 힘·기술·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북한은 특히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러한 투쟁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자부한다.<sup>9)</sup> 자강력제일주의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과학기술을 통하여 기계설비를 현대화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생산품의 질과 노동생산능률을 향상시켜 수입의존도 감소 및 생산품을 국산화시키는 것에 있다.<sup>10)</sup> 이에 대한 부문별 방침과 기정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표 1>에 정리되어있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응하여 설비, 원료 등 생산수단의 자립화를 통해 내수경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sup>11)</sup>

<표 1> 자강력제일주의 방침

일자	주요 내용
2014년 제1호 사회과학원학보 (정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주의강성국가는 자주의 길이며 우리식으로 나라와 민족의 변명을 이룩해나가는 것임.</li> </ul>
2014년 제2호 경제연구 (안명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민경제의 주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우리나라의 자원과 우리나라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하는 것임"(p.8).</li> <li>- "사회주의경제강국은 자력갱생의 경제강국"(p.9)이며, 부족한 부분을 남의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임.</li> </ul> </li> </ul>
2014년 제3호 사회과학원학보 (리광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라와 민족의 변명은 자력갱생에 있으며 오늘날의 자력갱생은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함"(p.60).</li> </ul>
2015년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김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력갱생은 자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정신이며, 주체사상의 혁명 근본원칙임.</li> </ul>
2015년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김성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화·정보화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제관리방법에 맞아야 함.</li> </ul>
2015. 12. 17 조선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의 &lt;제재&gt;소동은 오히려 군수공업부문 노동계급의 자력갱생정신과 '자강력'을 더욱 분발시킬 뿐이며 결국 군수공업의 국산화 비율만 높아지게 할뿐이라고 내세움.</li> </ul>
2016. 1. 1 신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의 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함.</li> </ul> </li> </ul>
2016. 1. 3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과 교육을 강성국가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사로 내세웠기에 과학자, 교육자, 기술자, 노동자들은 현대화이자 국산화라는 관점을 확고히 세우고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밑에서 온 나라에 국산화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 있다고 밝힘.</li> </ul>
2016년 제1호 사회과학원학보 (서성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강력제일주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힘있게 다그쳐 나가기 위한 근본담보"(p. 8)</li> </ul>

9) 김룡진,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 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2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10) 정춘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설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2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11) 서성일, 「자강력제일주의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근본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6년 제1호, 사회과학출판사, 2016, p.8.

<표 1>의 계속

일자	주요 내용
2016. 4. 7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강력제일주의에서의 우리식 현대화를 강조</li> <li>우리의 현대화는 철저히 우리의 노력과 기술로 생산설비를 개발·생산하는 것으로 정의함.</li> </ul>
2016년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김룡진) (정춘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자체의 힘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 강성국가건설을 이루어야함</li> <li>세상의 많은 나라와 민족중에 우리인민처럼 자강력제일주의를 기초로 우리의 힘·기술·자원으로 투쟁하는 인민은 없다고 강조</li> <li>설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임</li> <li>기계설비 현대화를 위해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함</li> <li>공작기계의 성능 현대화 → 생산품 질·노동생산률 향상 → 수입의존 감소(국산화)</li> </ul>
2016. 5. 7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조선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함을 강조함.</li> <li>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을 바탕으로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임.</li> <li>'사회주의건설의 총노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밝힘.</li> <li>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국산화를 더욱 강하게 추진하고, 강성국가건설의 기관차인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돌파구를 찾고, 세계를 향하여 전진해야 함.</li> <li>과학기술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임.</li> <li>우리의 자강력을 급격히 증대시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이끌어 나가야 함.</li> </ul> </li> <li>공장·기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장·기업소와 당의 조직들은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 후방사업을 기본으로 자강력을 키워 생산경쟁화를 추진하여야 함.</li> </ul> </li> </ul>
2016. 5. 27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lt;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빠른 기간에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율을 6~70% 수준에 올려세울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gt;라고 기술의 현대화를 강조함.</li> </ul> </li> </ul>
2016. 6. 1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계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lt;기계제작기술의 최신성과에 토대하여 새형의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설계·제작하고 계열생산공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gt;라고 함.</li> </ul> </li> </ul>
2016. 7. 6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상운수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큰 짐배를 생산해 제재책동에 이겨내고 우리 당 경제정책을 기어이 관철하자!</li> </ul> </li> </ul>
2016년 제3호 경제연구 (류영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강력제일주의가 경제강국건설의 근본적인 방법인 이유는 자기의 힘과 지혜에 기초한 과학기술로 나라와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기 때문임.</li> </ul>
2016년 제3호 사회과학원학보 (전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력갱생에 기초한 국산화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 실현의 중요한 담보이며, 우리식 현대과학기술발전을 강조</li> <li>자력갱생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경제봉쇄책동을 이겨내고 북한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현 방법임을 전함.</li> </ul>
2016년 제4호 경제연구 (강철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비와 원료자재의 국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비와 원료자재는 생산과 건설의 필수적이며, 이것을 국산화하는 것은 북한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요 요소를 전함.</li> <li>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대중적 운동으로 전환시켜야 함</li> </ul> </li> </ul>
2016년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김봉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강력제일주의는 우리의 힘·기술·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역량을 강화하고 앞길을 개척하는 혁명정신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임을 밝힘.</li> <li>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를 비극적 사태의 예시로 소개하며,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힘을 키우지 못하면 결국 제국주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언급</li> <li>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중요한 과업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를 다지면서 과학기술강국건설과 경제강국건설, 문명강국건설을 마련하는 것임을 강조</li> </ul>

<표 1>의 계속

일자	주요 내용
2016년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김봉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하는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 압력소동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진의 걸음을 막고 있다고 하며, 우리가 강해질수록 방해책동은 더욱 악랄해져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조성될 수 있다고 언급</li> </ul>
2016년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조길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 자원쟁탈전, 수출제한조치를 이겨내는 자립경제강국을 위한 사활적인 요구임을 강조</li> <li>- 원료·연료·설비의 국산화를 위해선 인민경제의 현대화, 경보화를 다그쳐 첨단설비를 비롯하여 실정에 맞게 현실화를 시켜야 함을 강조</li> </ul>
2017. 1. 1 신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li> <li>- 지난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위대한 자강력이었음을 언급</li> <li>-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 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동력전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고 강조</li> <li>-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자력자강은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라고 밝힘.</li> </ul>
2017. 1. 13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강력제일주의기치 높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집중하고자 과학기술, 중요공업부문 단위에서 꺾기모임을 가짐</li> <li>- 국가과학원: 원료, 연료, 설비국산화에 중점을 두어 공장·기업소의 현대화·생산정상화와 같은 기술적 문제해결 강조</li> <li>- 농업연구원: 과학기술강국화, 인재강국화실현을 위한 기수, 들격대가 되어 과학농사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입증할 것임을 강조</li> <li>- 전력공업성: 국가통합관리체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고, 교차생산조직을 통하여 전력생산과 소비의 균형 강조</li> <li>-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수풍발전소: 발전설비와 구조의 질을 높여 전력생산계획 수행계획 밝힘</li> <li>-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의 투쟁을 이어가며,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철생산 원가를 낮추고 주체화된 철강재생산과정의 중요성 강조</li> <li>- 화학공업성, 2·8비발론연합기업소: 중요화학공장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공정을 우리식으로 개조하여 화학제품생산을 늘리고, 자체의 기술개발역량 강조</li> <li>-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70일·200일전투의 기세를 이어 효과적인 채탄방법과 설비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발전소와 금속·화학공장들에게 석탄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임을 강조</li> <li>- 일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 서평양기관차대: 노동계급의 주체혁명과 현대적인 차량생산과 활발한 5·18무사고정사건인초과운동을 통해 경제부문에 기여할 것을 강조</li> <li>-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평양방직기계공장: 기계제작공업의 자립적 토대를 다지며, 성능높은 기계설비 보장을 강조</li> </ul>
2017. 1. 20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력자강에 기초하여 지난해 새형의 트랙도르와 화물자동차, 성능높은 전기기관차와 《황금해》 계열의 만능 고기배,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짧은 기간에 제작하여 제7차당대회에 받쳤음을 강조</li> <li>지난해에는 우리의 힘·기술·자원으로 새형의 기계들을 만들었다면, 올해는 그 설비를 생산과정에 도입을 목표</li> <li>- 국산화를 위한 투쟁과, 자력자강을 위해서는 일군들과 노동계급의 중요성 강조</li> </ul>

자료: 각종 보도자료와 북한문헌을 정리함.

## II. 자강력제일주의 분야별 추진동향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과정의 현대화·국산화를 기반으로 자강력제일주의 열풍을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sup>12)</sup> 작년 5월 36년만에 열린 제7차당대회에서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선포된다. 김일성·김정일 정권에서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자력갱생을 강조했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초공업의 발전을 이루고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발전을 추진하였다.<sup>13)</sup>

본장에서는 북한문헌(경제연구, 사회과학원학보, 김일성종합대학학보)과, 북한매체(노동신문, 조선신보)에서 '자강력'이라는 키워드로 분류되는 자료를 사용했으며, 분야별 추진경과는 ①과학기술, ②공장·기업소, ③농수산·축산부문으로 분류하였다.

## 1. 과학·기술

김정은 위원장은 자강력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추동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추진방침은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강력제일주의이다. 즉, 현대화·과학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자체의 기술·제품개발능력이 핵심 요소임을 강조한다.<sup>14)</sup> 자력자강의 추진경과는 주로 북한의 자체 과학기술과 설비로 자체상품을 개발·생산하는 것에서 강조되었으며, 전동차 등의 운송기계, 전력 및 에너지 생산부분에서 나타난다. 또한 자체기술개발역량을 위해 과학자, 기술자, 고급기능공들의 높은지식수준을 요구한다.<sup>15)</sup>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원료와 자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기술자·연구자의 지식수준을 기반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다.<sup>16)</sup> <표 2>는 2013년부터 북한 언론과 문헌에 소개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자강력제일주의 방침과 보도동향을 소개한다.

<표 2> 과학·기술에서의 자강력제일주의 방침과 보도동향

일자	주요 내용
2013년 제2호 사회과학원학보 (김금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기술의 발전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연구성과를 알맞게 생산에 도입하여 나라의 경제전반을 최신과학기술 토대에 올리는 것임.</li> </ul>
2013년 제3호 사회과학원학보 (김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기초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기초기술인 정보·나노·생물공학기술을 중심으로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새재료·새에너지·우주·로봇·핵·해양기술 등의 첨단과학기술분야에 집중하여야함.</li> </ul> </li> <li>주체적인 과학기술발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적인 과학기술발전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자체로 최신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과 다른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잘 배합하는 것임.</li> </ul> </li> </ul>

12) 『노동신문』, 「태양의 빛발아래 우리의 앞날은 더욱 눈부시리라」, 2016. 1. 3.

13) 『경제연구』, 2010년 제2호; 『경제연구』, 2010년 제3호.

14) 김동남, 「자체의 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능력의 제고는 현시기 생산의 현대화, 과학화의 중심」, 『경제연구』, 2010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15) 리강준, 「부단한 새 제품개발은 경공업제품질제고의 중요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4년 제2호, 사회과학출판사, 2014.

16) 손영석,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4년 제60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4.

<표 2>의 계속

일자	주요 내용
2014년 제1호 경제연구 (김성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업기업소의 특징에 맞는 과학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공장기업소 내에서도 공정별, 대상별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요구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최첨단 수준에서 현대화·정보화를 추진해야함.</li> </ul> </li> </ul>
2014년 제2호 경제연구 (김진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능공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능공양성사업을 강화하여야함.</li> <li>- 지식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정보기술 및 CNC기술에 기초한 설비 및 생산공정을 원만히 다룰 수 있는 기능공들을 갖추어야함.</li> </ul> </li> </ul>
2014년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손영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기술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선 원료·자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임.</li> <li>- 생산력의 발전은 사람의 지적인 힘의 발전이자 과학기술의 발전임.</li> <li>-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며 경제토대를 다져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담보임.</li> </ul> </li> </ul>
2014년 제2호 사회과학원학보 (리강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기술에 기초한 제품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제품개발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의 과학기술역량을 키워야함(정보, 생물, 나노기술 등)</li> <li>- 첨단기술에 기초하여 개발된 새로운 제품은 품질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임.</li> <li>- 경쟁업은 다른부문들의 제품과 달리 인민들의 생활수요를 충족시키는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li> <li>- 과학자, 기술자, 고급기능공들의 높은 지식수준과 함께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의 기술혁신운동을 진행해야함.</li> </ul> </li> </ul>
2015년 제1호 경제연구 (방향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기술연구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위해 과학기술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함</li> <li>-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대학 등의 대학에서는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수준높은 인재를 키우고, 공장·기업소에서도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해야함.</li> </ul> </li> </ul>
2015년 제2호 경제연구 (차금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력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전기문제를 해결하여 공장, 기업소가 잘 돌아가도록 해야함.</li> </ul> </li> </ul>
2015년 제4호 사회과학원학보 (한금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기술과 생산의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킨다는 것은 기업체들이 제품개발권·품질관리권·인재관리권을 알맞게 활용하여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품질 높은 제품생산과 개발목표를 설정 하는 것임.</li> <li>- 기업체들의 새기술·제품의 질을 높이는 과학연구사업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음.</li> </ul> </li> </ul>
2015년 제4호 경제연구 (리명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심고리가 CNC화에 있음.</li> <li>- 김정은 위원장은 전국의 공장,기업소를 현지지도하며 CNC기술의 도입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위한 대책을 세웠다고 함.</li> </ul> </li> </ul>
2016. 1. 2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전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의 지하공전에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여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개발·생산</li> </ul> </li> <li>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도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들고 설비, 원료자재의 국산화 실현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해갈 열의에 넘침.</li> </ul>
2016. 1. 4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력생산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천군량정사업소는 실정에 맞게 효율이 높고 실리가 큰 버거가스에 의한 전력생산 공정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정상적으로 이루었음.</li> </ul> </li> </ul>
2016. 5. 26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송기계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70일전투 기간동안 5톤급 화물자동차와 버스, 80마력의 고기배, 5,000톤급 무역짐배 등을 우리의 힘·기술로 제작하여 어머니당대회에 선물로 제공함.</li> </ul> </li> <li>에너지생산부문(태양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운과학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태양에너지 동력의 현대적인 태양빛전지유람선 건조 성공</li> </ul> </li> </ul>

<표 2>의 계속

일자	주요 내용
2016. 6. 1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생산부문(풍력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과학원과 해당 기관들은 삼지연지구와 풍력자원실태를 연구·조사하여 효율이 높은 여러 종류의 풍력발전기를 우리식으로 새롭게 제작함.</li> <li>- 국가과학원에서 제작한 100kW급의 풍력발전기는 바람의 세기에 따라 유압식으로 날개설치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회전직경이 21.5m로 날개재료를 유리섬유강화수지로 만들어 발전효율이 높음.</li> <li>- 전자공업성 산하 평성자동화기구공장과 새날전기공장, 전자기술제품연구소는 유리섬유강화수지로 된 10kW급의 풍력발전기를 제작함.</li> <li>-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와 새날전기공장에서는 600W급의 풍력발전기를 제작함.</li> </ul> </li> </ul>
2016. 6. 18 조선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기계생산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성뜨락뜨르공장에서 100%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형의 80마력뜨락뜨르를 개발하였고, 이것을 자력자강의 창조물이라고 소개함.</li> </ul> </li> </ul>
2016년 제3호 경제연구 (김희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기술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중요한 문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세계적인 수준에서 정보화하는 것임”(p.17)</li> <li>- CNC화(컴퓨터로 기계설비들을 조정하여 생산공정을 지휘하는 자동조종기술)를 발전시켜 컴퓨터통합생산체계, 지능생산체계단계를 추진하는 것이 무인화의 실현임.</li> </ul> </li> </ul>
2016년 제4호 경제연구 (김경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기술생산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과 생산의 결합하는 것은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와 요구를 통일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 요소임.</li> <li>- 기술을 생산에 도입하는 것은 과학기술발전의 성과를 검증하는 기준이며,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게 함</li> <li>-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노동집약형산업을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제품단위 당 소비기준을 낮추어 실리 보장, 기술갱신주기를 앞당겨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임을 전함.</li> </ul> </li> </ul>
2016년 제4호 경제연구 (허현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학발전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발전소생산공정관리는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생산과정의 고유한 특성과 요구에 맞게 공정관리를 개선해 가는 것임.</li> <li>- 발전소생산공정관리에 계량측정제도를 도입하고,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 정보수단을 응용하여 자동측정장치들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감, 전송되게 하며 자동적인 분류·집계·비교·판단·선별·가공처리함으로써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함을 강조</li> <li>- 발전소들의 정보체계는 보이라, 타빈, 종합감시반(CMP)등에서 측정된 신호정보들을 컴퓨터망에 전송하여, 종합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li> </ul> </li> </ul>
2016년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조길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동력생산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석탄가스화에 의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고, 갈탄을 이용한 석탄건류공정, 희망초를 원료로 하는 탄산소다공업을 완비하여 메탄올, 합성연유, 합성수지를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의 주체화를 높여야함을 강조</li> <li>- 둘째,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에너지, 동력문제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강조(특히, 전력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 조건이며, 주민생활향상의 중심에 있음을 강조)</li> </ul> </li> </ul>
2017. 2. 12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료생산기술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과학자들이 우리의 힘·기술·원료에 의거하여 효율높은 생물디젤유를 개발. 이것은 자강력을 증대시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민총동력전을 힘있게 추진하기위한 첨단과학기술성공이라고 전함.</li> <li>- 개발된 생물디젤유는 트락뜨르에 시험해본결과 유해가스를 방출하지 않으면서도 디젤유 못지않게 효과적이라고 전함.</li> </ul> </li> </ul>

자료: 각종 보도자료와 북한문헌을 정리함.



## 2. 공장·기업소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기초공업부문에서의 선행적 발전을 내세우며, 특히 금속·전력·석탄공업과 철도운수에서의 발전을 강조한다.<sup>17)</sup> 자강력제일주의의 핵심은 자체적인 기술·설비를 통해 품질 좋은 국산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있다. 북한의 언론에서는 과학기술의 추진경과가 나타나는 공장과 기업소의 생산품을 주로 선전하였고, 70일·200일 전투의 계획을 자강력의 정신으로 추가달성 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주요 보도내용과 방침을 산업부문별로 나누어 발행 순서대로 정리하였다(표 3 참조). 주요 추진동향은 육·해상운송기계, 농기계,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소와 원료생산 부문에서 나타난다. 과학기술 발전의 주요경과와 함께 강조되는 것은 ‘우리 식’에 적합하게 맞추는 것이다. 즉, 생산과정에서의 과학화를 기본으로 하여 북한의 공업·기업소의 특성과 현실조건에 맞추어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sup>18)</sup>

〈표 3〉 공장·기업소에서의 자강력제일주의 방침과 추진동향

일자	주요 내용
2013년 제4호 사회과학원학보 (서영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공업부문</li> <li>- 식료가공·방직·일용품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을 발전시켜야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의 주요경제건설 방향임.</li> </ul>
2014년 제1호 경제연구 (리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공업부문</li> <li>- 경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함.</li> <li>- 경제제재에 대응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경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여 인민생활문제를 우리자체의 힘으로 풀어내야 함.</li> </ul>
2014년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리영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공업부문</li> <li>-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li> <li>- 지방의 예비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지방자체의 힘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려야함</li> <li>- 연료의 원천지와 소비지의 생산을 연계하여 효과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여야함.</li> <li>- 지방공업의 현대화는 지방의 특색과 생산조건에 맞게 진행해야함.</li> </ul>
2014년 제3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황해경) (한정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주의경제강국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와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에 의거하여 일떠서는 나라이다”(p.30).</li> <li>건설부문</li> <li>- 건설은 사회주의강성국가, 나라의 경제적·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선임.</li> <li>- 발전소, 농장, 축산기지, 수로공사, 살림집, 합숙건설과 교육조건을 위한 건설을 추진해야함.</li> <li>- “건설부문의 근로자들은 우리사상, 우리힘, 우리 식이 제일이라는 관점에서 원대한 이상과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함(p.78).</li> </ul>

17) 김진욱,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생산적축적의 강화」, 『경제연구』, 2010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18) 림일철, 「사회주의경제강국의 요구에 맞게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공업의 현대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10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표 3>의 계속

일자	주요 내용
2014년 제4호 경제연구 (배영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공업부문의 공장·기업소들에서는 설비갱신사업을 진행하여 생산능력을 향상시켜야함.</li> <li>- 화학공장에는 유해로운 물질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설비를 갱신하여 유독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차단해야함.</li> </ul> </li> </ul>
2014년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강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화학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과 석탄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금속,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선진적인 에너지 절약기술을 개발·도입하여 제품단위당 소비를 현재보다 50% 낮추어야함</li> <li>- 생산공정의 CNC·무인화가 필요함</li> <li>-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와 같은 주요기업소에서는 전력과 함께 절경광 등의 필요한 원료와 자재, 설비를 보장해주어함.</li> <li>- 세계적 추세에 맞게 나노기술을 적극 받아드려야함.</li> </ul> </li> </ul>
2015년 제4호 경제연구 (리기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의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와 주체적인 과학기술역량에 의거하여 공장, 기업소에서는 원료투입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현대화 해야함.</li> <li>- "현실을 반영하여 주체적인 역량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의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함"(p.23)</li> </ul> </li> </ul>
2016. 1. 20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멘트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북한의 시멘트공업의 상징인 대건재공업기지의 위력을 발휘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의 시멘트생산량을 돌파함.</li> <li>-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우리의 힘·기술·원료를 통해 현대기술인 고질시멘트생산기술을 확립하였고, 6월 말까지 상반기 계획의 103.2%를 달성함.</li> </ul> </li> </ul>
2016. 4. 2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70일전투 선철, 압연강재생산계획을 각각 129%, 111% 달성함.</li> </ul> </li> <li>▪ 광물생산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검덕광업연합기업소는 70일전투기간동안 연, 아연 함유량생산계획을 일평균 1.4배 추가달성함.</li> </ul> </li> </ul>
2016년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경춘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작기계, 트랙터, 자동차, 대상설비·정밀기계를 생산하는 기계공장들의 기술역량이 중요함(p.68).</li> </ul> </li> </ul>
2016. 5. 6 조선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철전사와 광부들은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으로 주체철, 압연강재, 철광석생산목표를 달성하고 영광의 5월을 맞이함.</li> <li>-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70일전투 선철, 압연강재생산계획을 각각 129%, 111% 달성</li> </ul> </li> <li>▪ 철도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우리의 첫 지하전동차를 개발·생산한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새형의 성능높은 전기기관차들을 제작하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보장하는데 기여</li> </ul> </li> <li>▪ 기계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육해운부문 노동계급은 현대화와 국산화의 관점 밑에서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현대적인 화물자동차와 버스, 짐배, 태양빛전지유립선을 당의 요구수준에 맞춤.</li> </ul> </li> <li>▪ 기계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무정형철심을 이용한 변압기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우리의식의 새로운 채취기계설비들과 전동기, 에너지절약형번압기, CNC기계들을 연이어 개발·생산</li> </ul> </li> <li>▪ 해상운수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의 힘과 기술로 배무이(조선)전투를 벌여 짧은 기간에 &lt;황금해&gt;계열의 만능화된 고기배를 바다에 띄움.</li> <li>-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김책공업종합대학과 신포고기배 설계연구진과 협력하여 만든 380마력의 배&lt;황금해 -2&gt;는 전기전동에 의한 조타가 가능한 현대화된 배임을 소개<sup>19)</sup></li> </ul> </li> </ul>

<표 3>의 계속

일자	주요 내용
2016. 5. 26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생산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에서는 새로운 115마력의 디젤기관을 장비한 5톤급 화물자동차를 개발함.</li> <li>- 육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과 청진버스공장은 열풍순환식 실내 난방체계를 갖추고 현대적으로 개조된 &lt;검삼&gt;형 버스를 생산함.</li> </ul> </li> </ul>
2016. 5. 26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상운수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해운성과 영남배수리공장의 노동자들은 7차 당대회에 드리는 5천톤급 무역짐배의 타축계통, 추진축, 추진기를 비롯한 주요설비들과 자재들을 국내에서 생산보장하여 건조함.</li> </ul> </li> </ul>
2016. 5. 27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트랙도르와 80마력기관이 개발됨으로써 벼종합수확기를 비롯해 영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었음.</li> <li>- 북한의 실정에 맞게 개조설계한 11종에 17대의 현대적인 농기계제품들과 전국각지의 농기계공장들이 자체 개발한 12종에 14대의 농기계 제품들을 어머니당대회의 노력적 선물로 제공함.</li> <li>- 예를 들어, 종합밭갈이 기계와 50마력의 트랙도르를 결합하여 토양관리작업과 씨뿌리기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계, 93명의 노력을 대신할 수 있는 강냉이파종기등이 포함됨.</li> </ul> </li> </ul>
2016. 6. 1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공업성과 구성공작기계공장의 연구진과 노동자는 복잡한 곡면형태를 가공할 수 있는 첨단수준의 CNC내외면연마반을 제작하여 어머니당대회에 충경의 선물로 제공함.</li> <li>- 부속품의 국산화 비중을 끌어올린 새로운 CNC설비의 개발을 통해 기계제작공업 전반의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함.</li> <li>- 채취기계공업국 산하 동림전기공장, 동림광산기계공장, 전천착암기공장의 기술자들과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 연구원들은 SR전동기를 장착한 탄광전차, 적재기, 전기식착암기를 비롯해 경제적효과성이 큰 기계설비들을 우리식으로 제작하는 성과를 이루었음.</li> </ul> </li> </ul>
2016. 7. 6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상운수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남배수리공장의 노동계급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lt;자력&gt;호계열의 무역짐배와 여러짐배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더 많이 건조하여 나라의 해상운수를 새로운 토대에 올려세울 열의에 넘쳐 진군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함.</li> </ul> </li> </ul>
2016년 제3호 경제연구 (김홍수) (고재원) (양춘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 기업소에서는 설비·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우리의 힘, 기술, 자원에 의거한 현대화를 실현해야함.</li> <li>▪ “생활필수품생산기지들을 현대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식의 현대화·국산화임”(p.23)</li> <li>▪ 자연에너지 생산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산화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나라에 흔한 자원으로 설비들을 제작하는 것임”(p.32)</li> <li>- 지역별 바람의 방향과 속도에 맞는 풍차와 설비를 제작하여야함.</li> <li>- 태양에너지도 지리적 특징에 맞게 태양열 발전에 필요한 설비를 제작하여야 함.</li> </ul> </li> <li>▪ 제품의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수입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내기업들 사이의 제품경쟁을 활발히 해야함.</li> <li>- 제품개발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시장수요를 제대로 분석하여 새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재료를 우리의 자원·기술로 보장하여 새 제품을 개발하고 대량생산하여야함.</li> </ul> </li> </ul>
2016. 10. 24 조선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양말공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 양말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국산화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함.</li> <li>- 유엔의 대북제재로 물류가 차단되었지만, 기술혁신과 국내수요에 적응한 합리적경영관리가 실현되어 품질좋은 국산품이 외국제품을 밀어내기 시작하지 오래라고 함.</li> </ul> </li> </ul>

19) 『노동신문』,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1)」, 2016. 5. 26.

<표 3>의 계속

일자	주요 내용
2016. 10. 26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의 노동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어 다른나라의 지퍼보다 2배 품질 높은 우리식의 인민소비품 생산</li> </ul> </li> </ul>
2016. 11. 14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기계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서분무기공장에서는 이전에 비해 훨씬 가볍고, 5배이상의 작업능률낼 수 있는 배낭식미립분무기를 생산</li> <li>공장의 기속역량 향상으로 우리식으로 개조한 11종의 농기계에 필요한 수지부속품들을 모두 자체로 생산</li> </ul> </li> </ul>
2016. 11. 27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광연합기업소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평성석탄공업대학의 연구진과 협력하여 철근을 쓰지않는 공크리트침목을 생산하자는 연구결과 전함.</li> <li>연합기업소 탐사설비부속품공장에서는 이동식 4.5m<sup>3</sup> 공기압축기를 자체로 생산하였음</li> <li>70일전투 기간에는 70여건의 새기술과 창의안을 받아들여 수만톤의 석탄을 증산하고, 많은 인력과 전기를 절약함.</li> <li>200일전투에는 수십건의 기술혁신안을 완성하여 석탄생산을 늘리는데에 이바지함</li> <li>&lt;자강력을 구현하는데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것이 단위의 비약적 발전을 담보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gt;고 보도함.</li> </ul> </li> </ul>
2016. 12. 5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철기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철제철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200일전투 목표에 반영된 신철생산계획을 지난 11월 18일까지, 압연강재생산계획은 12월초까지 앞당겨 완료함.</li> </ul> </li> </ul>
2016. 12. 6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계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강력제일주의를 기반으로 공자의 노동자들은 200일전투기간동안 인민경제 여러부분에 필요한 수십대의 지하초염수뽐프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하여 남양제염소에 보냄.</li> <li>장산·동림전기공장의 노동자들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필요한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여 전동기생산계획을 10월말까지 완수</li> <li>동림전기공장은 7차당대회를 맞아 우리 식의 SR전동기 개발</li> </ul> </li> </ul>
2016. 12. 6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생산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성뜨락또르공장은 지난 11월 말까지 200일전투 공업생산계획의 136%, 뜨락또르생산계획은 112.5%달성</li> <li>로동계급은 자강력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당의 제7차대회를 맞았으며 새형의 뜨락또르계열 생산준비와 영농기계부속품 생산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을 더욱 높이 떨쳐나가고 있다고 전함.</li> </ul> </li> </ul>
2016. 12. 13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생산부문(수력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군민발전소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해 수십km의 지하물길과 약 200여만m<sup>3</sup>의 연제쌓기, 수천미터의 압력철관공사와 발전기실건축공사 및 설비조립공사, 전력망계통공사, 발전소 중업원들을 위한 100여세대의 살림집건설을 포함한 발전소건설공사를 도자체의 힘으로 완공하는 성과 이룸.</li> </ul> </li> </ul>
2017. 1. 21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기계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기계부속품생산의 7~80% (질량기준) 주철주물품이기 때문에 농기계작업소에서 용선로는 매우 중요한데, 황주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쇠를 녹이는 데에서의 어려움을 폐가스를 이용하여 극복, 문제점을 해결하여 생산경쟁화 시켰음을 강조, 또한 종전에 비해 전력소비가 1/3밖에 들지않는 중주파유도를 몇 달만에 자체의 힘으로 생산</li> </ul> </li> </ul>
2017. 2. 4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산화된 생산공정, 우리식의 가방용천생산공정을 자력자강의 결과물로 전함</li> <li>평양국산공장뿐만 아니라 김경숙평양제사공장, 평성합성기죽공장, 풍악산생물공장,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 등에서는 우리식의 생산공정 현대화 진행중임을 밝힘.</li> </ul> </li> <li>식료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양국산공장에서는 강냉이로 각종 식료품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물엿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당화물로 옥당(강냉이에서 뽑은 당)을 생산 중임을 강조</li> </ul> </li> </ul>

<표 3>의 계속

일자	주요 내용
2017. 2. 11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공업부문</li> <li>- 롱성기계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대상설비생산에서 총공격전을 벌이고 있으며, 2월 10일 현재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 보낼 대상설비총생산량의 96%을 돌파</li> <li>- 기계연합소 내 생산공정별 노동자의 생산력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통해 개선되었고, 높은 책임성과 역할분담을 통해 작업속도를 높여 대상설비생산에서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음을 강조</li> </ul>

자료: 각종 보도자료와 북한문헌을 정리함.

### 3. 농수산 · 축산

북한에서 농업은 공업과 함께 인민경제 2대부분으로 강조되는 부분이며, 공업의 발전을 통해 농업의 현대화 실현을 추구한다.<sup>20)</sup> 북한에서 주장하는 농산 · 수산 · 축산분야의 혁신을 통한 인민생활 개선과 식량문제해결은 2015년과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강조된 부분이다. 또한 농업부문에서는 우량종자를 확보하고, 토지정리와 농사방침에서의 변화를 통해 식량생산 확대를 강조한다. 앞서 공장 · 기업소 부문에서 농기계와 해상운송 기계부문에서의 추진동향이 소개되었다면 본 절에서는 농수산품의 직접적인 품질과 관련된 부문을 소개한다(표 4 참조).

<표 4> 농수산 · 축산 부분의 자강력제일주의 방침과 추진동향

일자	주요 내용
2013년 제1호 경제연구 (김광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일 위원장은 “농업과학기술혁명을 다그쳐야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을 공업화 · 현대화 · 과학화하고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함”(p.47).</li> <li>영농공경의 과학화 · 정보화 · 기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농업과학연구기관과 농장들을 연결하는 컴퓨터망을 구축하여 정보교환을 통하여 영농공경의 과학기술화 진행 중임을 밝힘.</li> <li>- 품질좋은 종자개발을 통해 알곡생산을 늘리고자하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포 · 유전자공학의 성과와 정보기술 필요함.</li> <li>- 트랙터, 자동차, 파종기, 제초기, 수확기같은 기계수단을 받아들여 농업부문에서의 기계화를 실현 중임.</li> </ul> </li> </ul>
2014년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정영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들의 식량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도 중 하나는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의 어떻게 진행하는지의 중요성 강조</li> <li>- 장마철피해를 막기위한 산림조성사업, 간석지개간, 토지개량과 토지의 지력을 높이는 사업 진행의 필요성을 강조</li> </ul> </li> </ul>

20) 한철주, 「공업의 현대화는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도」, 『경제연구』, 2007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표 4>의 계속

일자	주요 내용
2014년 제2호 경제연구 (한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생산의 집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생산의 고도화 집약화는 최신과학의 성과에 기초하여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기름진땅을 활용해 수확량을 높이는 것임.</li> <li>“농업생산의 고도의 집약화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자기나라의 땅과 자기 인민의 힘으로 자기나라에 필요한 농업생산물을 자체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방법임”(p.4).</li> </ul> </li> </ul>
2015년 제2호 경제연구 (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부문 관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동농장에서 알곡생산계획을 추가달성하는 전형분조와 포전을 잘관리하여 모범적인 농장원들에 대한 평가를 잘 주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함을 강조</li> </ul> </li> </ul>
2016년 1. 1 신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부문에서는 우량품종과 과학농법을 받아들여 농촌의 기계화를 추진하고, 영농공정별 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달성하고자함.</li> </ul>
2016. 1. 4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논벼우량품종개발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산협동농장 일꾼들은 농업부분의 과업(우량품종도입문제)을 위해 지난해의 성과와 올해의 목표를 다짐함.</li> <li>자강력을 높이 발휘하여 종자확보, 포전별 품종배치계획을 비롯한 그 준비사업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함.</li> </ul> </li> </ul>
2016. 6. 17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초생산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리마구역약초관리소에서는 조직배양방법으로 약초모를 생산하여 적은 면적에서도 많은 약초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함(3년동안 7~8톤을 수확하였다면 조직배양의 방법으로 수십톤의 약초 생산가능)</li> </ul> </li> </ul>
2016년 제3호 경제연구 (박수향) (홍영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은 위원장은 좋은 ①집징승중자확보, ②충분한 먹이, ③과학적인 사양관리, ④철저한 수의방역대책을 축산업의 ‘4대고리’ 사항으로 내세움</li> <li>축산업의 4대고리를 위해서는 가축농장과 종축장을 현대적으로 가꾸고, 최신과학기술의 발전, 연구자들의 연구사업 조건을 보장해주어 과학기술지도체계를 세워야함.</li> </ul> </li> <li>수산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업에서는 물고기 잡이를 과학화·현대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li> <li>“그물우리양어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먹이문제를 세계적 추세에 맞게 우리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p.40).</li> </ul> </li> </ul>
2016. 12. 6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기와 알생산을 늘이기 위해 사회주의경쟁이 벌어지고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가축들의 부족한 먹이를 대체하기 위한 과학축산열풍이 번지고 있음.</li> <li>이에 사리원돼지공장과 구성닭공장에서 연간 고기생산과 알생산 계획을 추가달성</li> </ul> </li> </ul>

자료: 각종 보도자료와 북한문헌을 정리함.

## 참고문헌

<북한문헌>

강철민, 「설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는 경제강국건설의 절실한 요구」, 『경제연구』, 2016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강춘식,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쌍기둥으로 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경제를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0권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4.

김경일,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2016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고재원, 「전력생산에서 자연에너르기의 효과적이용방도」, 『경제연구』, 2016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김광국,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 61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5.

김광길, 「정보기술에 기초한 농업생산의 발전동향」, 『경제연구』, 2013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김금순, 「과학기술발전계획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절박한요구」, 『사회과학원학보』, 2013년 제2호, 사회과학출판사, 2013.

김동남, 「자체의 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능력의 제고는 현시기 생산의 현대화, 과학화의 중심」, 『경제연구』, 2010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김룡수, 「생활필수품생산을 늘이는 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2016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김룡진,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 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2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김미화, 「우리식의 주체적인과학기술발전방식」, 『사회과학원학보』, 2013년 제3호, 사회과학출판사, 2013.

김봉덕, 「자강력제일주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항구적인 전략적로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2권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김성혁,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 문제, 『경제연구』, 2014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 김진욱,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생산적축적의 강화」, 『경제연구』, 2010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 김진향, 「기능공양성계획작성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지식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2014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 김희숙, 「정보기술의 발전은 인민경제정보화의 기본고리」, 『경제연구』, 2016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 류영철, 「자강력제일주의는 경제강국건설의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방도」, 『경제연구』, 2016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 리강춘, 「부단한 새 제품개발은 경공업제품질제고의 중요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4년 제2호, 사회과학출판사, 2014.
- 리광철, 「과학기술을 강성국가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워야할필요성」, 『사회과학원학보』, 2014년 제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4.
- 리기웅, 「우리식의 현대화, 정보화는 절약의 중요담보」, 『경제연구』, 2015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 리명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CNC화를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 『경제연구』, 2015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 리영남,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0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4.
- 리진수, 「경공업원료, 자재의 국산화는 경공업발전의 생명선」, 『경제연구』, 2014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 림일철, 「사회주의경제강국의 요구에 맞게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공업의 현대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10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 박수향,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를 확고히 틀어지고 축산물 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키기위한 중요문제」, 『경제연구』, 2016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 방향순, 「과학기술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절박한 요구」, 『경제연구』, 2015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 배영호, 「현시기 화학공업부문의 설비갱신의 중요성」, 『경제연구』, 2014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 서성일, 「자강력제일주의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근본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6년 제1호, 사회과학출판사, 2016.
- 서영수, 「경공업은 올해 경제건설의 주타격방향」, 『사회과학원학보』, 2013년 제4호, 사회과학출판사, 2013.
- 손영석,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0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4년.
- 안명훈,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2014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 양춘길,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수입병을 없애는 것은 현시기 경제발전의 중요방도」, 『경제연구』, 2016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 전옥실, 「자력갱생에 기초한 국산화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성과적실현을 위한 중요한 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6년 제3호, 사회과학출판사, 2016.
- 정영섭,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에 큰힘을 넣는 것은 숭고한 애국사업」,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0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4.
- 정춘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설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2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 정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은 자주적 길을 따라 나아가는 과정」, 『사회과학원학보』, 2014년 제1호, 사회과학출판사, 2014.
- 조길현,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2권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 조옥술,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은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관건적인 고리」, 『경제연구』, 2010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 한금옥, 「기업체들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의 밀착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사회과학원학보』, 2015년 제4호, 사회과학출판사, 2015.
- 한성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업생산의 집약화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경제연구』, 2014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 한정민, 「건설에서 새로운 변영기를 열어놓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기위한 중요한 구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0권 제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4.
- 한철주, 「공업의 현대화는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 기본방도, 『경제연구』, 2007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 한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15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 히현철, 「화력발전소생산공정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6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 홍승은, 『자립경제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84.
- 홍영준, 「그물우리양어의 경제적효과성과 그 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6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 황혜정,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전략적로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0권 제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4.

<언론보도>

- 『노동신문』, 「태양의 빛발아래 우리의 앞날은 더욱 눈부시리라」, 2016. 1. 3.
- 『노동신문』,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로」, 2016. 1. 20.
- 『노동신문』, 「검덕전구에 메아리치는 자강력제일주의 만세소리」, 2016. 4. 2.
- 『노동신문』, 「자강력은 모든 승리의 원천」, 2016. 4. 7.
- 『노동신문』,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1)」, 2016. 5. 26.
- 『노동신문』,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2)」, 2015. 5. 27.
- 『노동신문』,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3)」, 2016. 6. 1.
- 『노동신문』,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강력으로 천리마구역약초관리소에서」, 2016. 6. 17.
- 『노동신문』, 「자강력으로 해상운수발전의 돌파구를」, 2016. 7. 6.
- 『노동신문』, 「생명으로 틀어쥐 자강력제일주의」, 2016. 10. 26.
- 『노동신문』, 「유훈관철전의 불길속에 백배해지는 자강력」, 2016. 11. 14.
- 『노동신문』, 「자강력을 발휘하는데서 중시한 문제」, 2016. 11. 27.
- 『노동신문』, 「신철, 압연강재생산계획 빛나게 완수」, 2016. 12. 5.
- 『노동신문』, 「대중운동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 2016. 12. 6.
- 『노동신문』,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200일전투 목표 빛나게 수행」, 2016. 12. 6.
- 『노동신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원산군민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었다」, 2016. 12. 13.
- 『노동신문』,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자, 과

- 학기술, 중요공업부문 단위들에서 쫓기모임 진행], 2017. 1. 13.
- 『노동신문』, 「자력자강의 한길로」, 2017. 1. 20.
- 『노동신문』, 「생산활성화의 지름길은 자력자강」, 2017. 1. 21.
- 『노동신문』, 「국산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비약하는 우리의 경공업」, 2017. 2. 4.
- 『노동신문』, 「대상설비생산에서 련일 혁신 룡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2017. 2. 11.
- 『노동신문』, 「효률높은 생물연료 개발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에서」, 2017. 2. 12.
- 『서울경제』, 「통일부 “北, ‘200일 전투’ 김정일 사망일 맞춰 17일 종료」, 2016. 12. 13.
-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사, 70일정투성과와 관련한 보도문」, 2016. 5. 6.
- 『조선신보』, 「70일전투에서 빛나는 노력적위훈을 세운 기관…축하전문」, 2015. 5. 7.
- 『조선신보』, 「자력자강의 본때, 새형의 80마력트랙토르 <천리마-804>」, 2016. 6. 18.
- 『조선신보』, 「제재속에서의 부흥/조선경제, 그 활기와 저력」, 2016. 10. 24.
- 『조선신보』, 「조선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대조선 <제재>책동을 비난」, 2015. 12. 17.
- 『DailyNK』, 「김정일 “자력갱생 구호 높이 들어야”」, 2007. 1. 14.
- 『RFA』, 「[김현아]자강력제일주의」, 2016. 1. 11.
- 『RFA』, 「북, 70일전투 성과 대대적 조사」, 2016. 5. 16.